

바둑, 한옥과 만나다...공주시를 바둑의 메카로



노사초배, 조남철 국수배, 김인 국수배 등 당대 최고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회는 여럿 있다. 한상수배, 정현산배 등 요절한 이를 기리는 대회도 몇 존재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주에서 열린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회 앞에는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배'라는 다소 이채로운 수식어가 붙여졌다.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건가? 혹시 무령왕이 바둑 고수일지 모른다는 황당한 추측을 하며 인터넷 검색창에 '백제 제25대 무령왕'을 두드리며 쥐 잡듯 열심히 뒤졌다. 생물연대

(461 또는 462~523년)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왕. 재위기간 501~523년. 무력으로 고구려를 제압한 백제의 어라하. 휘는 사마(斯麻,摩) 등등.

블로그, 카페, 웹문서, 뉴스, 신문, 잡지 그 어디에도 무령왕이 바둑을 즐기고 잘 두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럼 뭘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진두지휘한 공주시 이준원 시장을 만났다.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공주에서 열린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는 유럽 및 아시아 12개국에서 150여 명의 외국인 선수들과 250여 명의 국내선수들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3박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바둑을 매개로 공주에서 국내외 선수들이 정도 나누고 백제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 바둑대축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공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청소년 바둑대회는 바둑대축제답게 여러 행사가 병행됐을 텐데요?

“바둑으로 하나되는 대축제였습니다. 메인대회인 세계청소년바둑대회 말고도 공주시민을 위한 별도의 바둑대회를 비롯해 프로기사 지도 다면기, 9줄바둑대회, 바둑스포츠 사진전, 보드게임 체험, 자유대국석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열려 바둑애호가들은 물론이고 바둑을 모르는 관람객들에게도 바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외국 참가선수들은 즐거워하던가요?

“우승하기 위해 이국 만리 공주를 찾은 사람

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한국바둑이 최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선진바둑을 배우고..., 또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체험의 장으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중국 후 진지하게 복기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파란 눈의 서양인을 보면서 이제 바둑은 동양3국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세삼 느끼게 됐습니다.”

-하야, 좋은데요. 이참에 바둑예찬론자로 나서는 것도 좋을 듯싶은데요.

“제가... 바둑예찬론자... 맞죠. 바둑에 대한 관심은 늘 많은 편입니다. 일본 왕실의 보물 저장고인 정창원에 보관된 목화자단기국도 눈으로 직접 보고 올 정도니까요.”

-아, 그건 아무 때나 오픈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본에 들렀을 때 마침 정창원 보물을 공개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목화자단기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 탄성이 절로 나왔죠. 이게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목화자단기국이구나! 백제장인의 정교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나중에 재현해 보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둑에 대한 식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바둑 실력도 상당하신 것 아닙니까?

“(손을 저으며) 바둑을 좋아하고 높이 보는데... 실은 제가 바둑을 거의 못 뒀요.”

-거의 못 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바둑에 대한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늘 가졌는데, 아쉽게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바둑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겨우 입문자 딱지만 떴고 말았지요.”

-‘목화자단기국’ ‘복기’라는 단어를 아시는 걸 보면 입문자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급수를 말씀해 주시죠.

“(다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이렇



공주시 바둑협회 김택진 부회장과 그의 환담 모습. 김 부회장의 자문과 도움으로 이번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아래 사진은 바둑대회 전경. 이준원 시장이 대국을 지켜보고 있다.

게 집요하실 수가... 두 자리 급수예요.”

-하하. 이렇게 곤란해 하시니 더 이상 바둑 실력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둑을 배워 조만간 한 지리 급수를 만든다는 게 조건입니다.

“허허. 큰일인데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어 바둑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고문(?)에 못 이겨 약속할 판이니...”

-그럼 약속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예. 제가 웬만해선 지는 성격이 아닌데, 기자 양반한테 두손 두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내년 공주에서 또 봐요~

언젠가 바둑인들이 십여 명 모인 술자리에서 ‘내가 아는 바둑을 지인에게 전수하기’ 운동을 펼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다. 이준원 시장을 보는 순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즉석 제안을 했다. 내가 바둑을 전수해 주겠노라고. 허나 서울과 공주는 1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로 사실상 왕래가 불가능하다. 하여

묘수를 짜냈다. 이준원 시장에게 바둑입문서 다음 편인 초급서 몇 권을 선물하기로 했다. 단 내년 여름 전까지 비급 초급서를 줄줄줄~ 독파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이준원 시장도 오우케이.

-바둑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공주에서 유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는 64년(5대)간 백제의 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 관광도시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개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5도(都)2촌(村) 프로젝트 주말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던 차에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유치, 개최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에 공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주의 브랜드 격상은 장기적으로 공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앞에 ‘무령왕배’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때 선수들의 숙소로 사용된 공주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3만310㎡의 터에 구들장 온돌난방을 기반으로 한옥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에 현대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접목시킨 신개념 한옥이다. 시설규모는 단체동의 경우 6개동에 37개의 객실과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개별동은 총 10채의 독채로 3채의 초가집과 7채의 기와집으로 5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어 고객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를 붙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령왕은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후 혼란한 시기에 백제 제25대 왕으로 즉위해 23년 재위기간 동안 민생안정과 왕권을 강화하고 백제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백제웅진시대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큰 업적을 이룬 무령왕을 기리기 위해 공주시가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체육행사에 ‘무령왕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에도 당연히 ‘무령왕배’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무령왕의 업적에 걸맞은 양질의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일종의 자부심과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외국인 150여 명을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왔는데, 숙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열악하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다행히 공주에는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오면서 한옥마을 보셨죠. 거기서 숙박했습니다.”

-아, 봤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공주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숙박한 거군요. 언제 조성된 거죠?

“한옥마을은 2010년 9월 세계대백제전 개막과 함께 개촌되었습니다. 백제의 왕도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한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며 쉬어갈 수 있도록 황토방 구들장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주하면 숙박시설 부족으로 잠깐 스쳐가는 관광지로 인식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공주 한옥마을이 개촌되면서 관광객들이 마음껏 공주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숙박을 하게 되면 인근의 음식점과 상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숙박이용객은?

“지난해의 경우 숙박이용객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공주를 찾으셨고 이곳 한옥마을에서 숙박하셨죠. 경제적 파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백제문화제가 열린다. 제58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고도 공주와 부여가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1955년부터 개최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다. 2010년 관람객 370만명(외국인 8만 5천여명)이 다녀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해 국내외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인식시키고 세계 속에 백제의 왕도 공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 있다. 금년 백제문화제의 특징은 백제문화와 금강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구성, 경쟁과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다. 시민 6,000여 명이 직접 참여하는 웅진성 퍼레이드는 장관을 연출하고 백제마을에서의 생생한 체험은 옛날 백제인이 된 듯 착각할 것이며 금강에 띄워질 유등은 금강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이다. 또한 금강부교 건너기는 가족과 연인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2010년 대백제전 모습.

급효과는 한국관광공사 기준 58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 때 이용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외국에서 오신 150여 명이 숙박을 했는데 한마디로 원더풀, 원더풀~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구조에 신기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점점 한옥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한 외국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밖에는 더운데 한옥만 들어서면 에어컨도 안들어났는데 시원하다. 참 묘하다.’ 이것이 바로 한옥의 장점이자 매력이지요. 더불어 숙소주변 관광명소인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 조선시대 관아인 선화당, 금강변 고마나루 등 유적지를 관람하고는 한옥과 공주의 아름다움에 다들 즐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혹, 내년 2013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연이어 개최하실 의향은?

“바둑계에 계신 분들이 발이 빠르더라고요. 주최측(대한바둑협회)에서 내년 대회 기간 동안 공주한옥마을 전객실을 예약했지 뭐니까. 2013 대회는 우리더러 개최하라는 암시죠. 하하하.”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주에서 열린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올해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미해 2013 세계청소년 바둑대축제를 공주에서 개최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한옥과 바둑. 동서의 청소년들이 19로 바둑판 앞에서 달그락 달그락 돌 놓는 소리를 내년 공주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인터뷰/구기호 편집장·사진/공주시청 홍보실 제공)